

# “금리인하 기대… 채권 막차타자” 개미, 지난달 4조2479억 사들여

개인 채권투자 월별기준 역대최대  
올 매수총액 13.7조… 4배 상승  
장기채권 비중 4%→19% 급증

기준금리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관측과 함께 ‘채권 막차’에 줄을 서는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주목되고 있던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등 채권 투자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있다.

22일 증권가에 따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공개한 지난달 개인 채권투자 규모는 4조2479억 원으로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올해 개인이 순매수한 총 금액은 13조6724억 원으로 약 14조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동기 3조419억 원 대비 4배 이상 오른 규모다.

국내 증시의 부진과 함께 금리가 계속 인상되면서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확대된 모습이다. 통상적으로 채권가격은 금리 상승 시 떨어지고, 금

리가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다시 오르게 된다.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겹치면서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들의 채권 매수 심리가 자극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한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최근 채권 투자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고객이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양한 채권을 시장 상황에 맞춰 빠르게 공급하고 관련 상품에 대한 일선 직원 교육을 확대하는 등 개인 투자자의 관심 증가에 대응해 시장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의 대거 유입과 함께 올해 소매채권 판매액은 약 13조 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개미들의 순매수 상위 채권 규모도 남다르다. 지난해 동월에는 개인 순매수 규모 1000억 원이 넘는 채권은 하나도 없었던 반면, 올해는 5개나 된다. 최상위 종목 간 순매수 금액 차이도 지난해에는 608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3597억 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본드웹에 따르면 이 중 개인 투자자

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채권은 ‘국채 20-2’로, 발행 만기 30년, 잔존 만기 27년짜리 초장기 채권이다. 이어 2위에도 발행 만기 20년, 잔존 만기 16년인 초장기채권 ‘국채 19-6’가 이름을 올렸다. 다만 국고채 등 장기채권 ETF에 관심이 쏠리면서 레버리지·인버스 ETF 상품은 시들해진 양상을 보였다.

특히 장기채권의 수익률이 주목되면서 한투증권의 채권 판매액 중 만기 5년 이상 장기채 비중은 연초 4%에서 지난 3월 말 19%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채권 상품은 절반을 넘긴 6개이며, 이 가운데 4개는 장기채 ETF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금리 인상 기조를 종료할 것이라던 신호가 나오면서 개인들의 채권투자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다”며 “낮아진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 매력, 또는 중장기적으로 자본차익을 기대하는 개인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한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투시도.

/롯데건설

## 롯데건설, 청량리 8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아파트 6개동 610세대 1728억 규모

롯데건설이 ‘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청량리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대를 연면적 8만9299.67㎡, 지하3층~지상24층 아파트 6개동, 총 610세대 규모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1728억 원이다.

롯데건설은 단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랜드마크동을 계획했다. 다양한 스카이라인, 커튼월 룩, 경관조명을 활용한 축벽 특화 등을 통해 아파트 외관 디자인에 럭셔리한 감성을 더할 계획이다.

또한, 전 세대 100% 남향 배치 및 통

경축(조망 확보 공간), 바람길 확보를 통해 단지의 개방감 또한 극대화할 예정이다.

청량리 제8구역은 지하철1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청량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교통 여건이 우수하며, 삼육초, 청량중, 청량고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학군도 우수한 편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쌓아온 시공 노하우를 담은 특화 설계를 제안했다”면서 “믿어주시는 조합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에 부응할 만한 청량리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 연질캡슐 점유율 1위… 건기식 871종에 적용

### 株라쿨라의 종목 알피바이오

흑삼·연질캡슐 기술 건기식 시장 공략  
고객사 250곳 이상… 수주잔고 550억

독립리서치리서치알음은 알피바이오에 대해 흑삼을 대체할 ‘흑삼’과 ‘연질캡슐’ 기술로 건기식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적정 주가는 1만7000원을 제시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22년에 가장 많이 판매된 기능성 원료는 흑삼으로 1조4000억 원 규모로 압도적이다.

알피바이오는 홍삼 시장을 대체할 개별인정원료(식약처장이 개별적 인정한 원료로 인정일로부터 6년 독점 생산 가능)인 ‘흑삼 추출물’ 제조 기술을 농촌진흥청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부터 이전받았다. 흑삼 추출물의 주성분은 ‘진세노사이드’로 흑삼 대비 최대 13배 함유돼 있다.

알피바이오는 2016년 설립해 다양한 연질캡슐 제조 기술을 가진(건기식) ODM·OEM 전문기업이며, 2022년 9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연질캡슐이란 오일 등 내용물이 젤라틴 등으로 이뤄진 캡슐에 충전되는 제형을 말한다. 동사의 연질캡슐은 대용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셀트리온

등 일반의약품 264종, 종근당건강, CJ웰케어, 휴온스 등 건기식 871종에 적용되고 있다.

우휘량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동사는 국내 일반의약품 연질캡슐 시장 점유율 1위로 국내 대형 제약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사(250개 이상)를 확보하고 있다”며 “각 고객사의 매출 비중이 10%가 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고객사 주문 감소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고 분석했다.

2023년 매출비중은 일반의약품 45.1%, 건강기능식품 54.7%, 기타 0.2%로 추정됐다. 현재 일반의약품 수주잔고는 약 550억 원이며 2024년 4월까지 수주 생산능력(CAPA)이 모두 확보된 상태다.

신한은 기자

## 전월세 매물광고에 관리비 게시 의무화

국토부, 임차인 알 권리 보장 일환  
내달 ‘관리비 투명화 방안’ 시행

앞으로 월세보다 높은 원룸·오피스텔 관리비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원룸과 오피스텔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 부과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

정액관리비에 대한선 부과 내용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도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용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항목별 관리비 내용을 작성하도록 개선,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pe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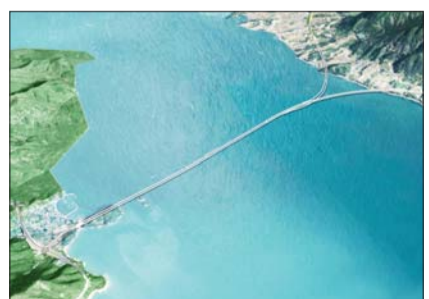
## DL이앤씨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수주

6974억 규모 총 8.09km 4차로 신설

DL이앤씨가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를 수주했다.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의 실시 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서를 수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 여수 신덕동과 경남 남해 서면을 연결하는 총 8.09km의 4차로 국도를 신설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6974억원으로 해저 분기터널 구간(5.76km)을 포함하고 있다. 오는 2031년 준공 시 남해~여수 간 이동시간이 기존 1시간3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위치도. /DL이앤씨

DL이앤씨는 입찰 참여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터널 본선 외에 남해군 북측으로 연결로를 신설한 차별화된 설계안을 제안해 가장 높은 기술점수를 받았다.

해저 분기터널 설계를 통해 터널 시공 막장을 기존 4개에서 8개로 2배 확장했다. 막장이 늘어나면 동시에 시공할 수

있는 구간이 늘어나는 만큼 공기를 13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다. 연결로 터널도 많아져 유사시 대피와 구난, 배연성능도 2배로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해저터널의 내화 성능을 높이고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내 최초의 단열·내화 콘크리트도 적용한다. 기존 콘크리트 대비 열전도도를 40% 감소시킨 고성능 콘크리트를 적용해 구조물의 안전성 극대화를 이뤄낼 것으로 예상된다.

권수영 DL이앤씨 토목사업본부장은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통해서 국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 토스증권, 전 직군서 50명 규모 공개채용

내달 11일까지 3주간 접수

토스증권이 출범 후 처음으로 단독 공채를 시작한다. 토스증권은 내달 11일까지 3주간 전 직군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개채용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토스증권이 희망하는 채용 인력은 약 50명 수준이다.

2021년 3월 공식 출범한 토스증권은 5월 현재 가입자 500만 명, 해외주식 거래 시장점유율 20%, 적립식 주식투자 ‘주식 모으기’ 이용자 60만 명 달성 등 지난 2년간 함께 도달하기 힘든 성과를 보여왔다. 그 결과 경영성과 측면에서도 출범 3년차만에 손익분기 달성이 가

시화되고 있다.

토스증권은 이번 공개채용을 통해 회사의 성장속도를 높이고 향후 비즈니스 확장을 준비할 계획이다. 올해 출시를 앞두고 있는 WTS(웹 주식거래 시스템), 해외 옵션 서비스와 함께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 디자인, 컴플라이언스, 전략기획, 홍보, 재무 등 전 직군을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한다.

전 직군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공개채용에서 지원 자격으로 요구하는 최소 인정경력은 별도로 없으며, 각 직무에 맞는 경험과 역량이 있다면 지원 가능하다.

신한은 기자